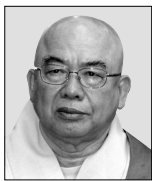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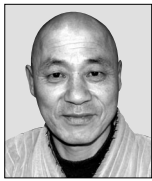
일 주 문



통도사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3월 29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군장 병 수계대법회를 개최했다.



참나를 찾아가는 대화 동국대 국제선센터 센터장 수불 스님은 4월 8일 오후 5시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시민 간화선 프로그램 '참나를 찾아가는 대화'를 가졌다.



낙동강 용왕대제 대법회 대구 달성군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4월 13일 오후 1시 '낙동강 방생 및 용왕대제 대법회 봉행'을 봉행한다. (053)616-8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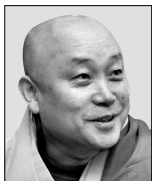


선학원 감사 선인 대구 보성선원 주지 한복 스님은 3월 26일 선학원 임시사회에서 감사로 선임됐다.



박명숙 작가, 흥련암에 도자기 기증 박명숙 무량광도에 대표는 3월 15일 양양 낙산사 흥련암에 찾아 작품 '연꽃 잎 큰항아리'를 비롯한 작품을 기증했다.

조계종 기획문화특보 만당 스님 임명



조계종 정책특보단 기획문화특보에 중앙총회의원 만당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 만당 스님에게 기획문화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중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만당스님은 1992년 서옹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6년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영광 불갑사 무각선원 주지, 불갑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제15대 중앙총회의원, 불교광장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대운당(大雲堂) 성문(盛文) 대종사 3월 24일 입적



승정 대운당(大雲堂) 성문(盛文) 대종사가 3월 24일 오후 3시경 원적에 들었다. 세수 76세, 법랍 64세. 영결식은 3월 27일 오전 9시 용양사에서 승정원장으로 봉행됐다.

대운당(大雲堂) 성문(盛文) 대종사는 박원명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해 1950년 남백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75년 봉원사에서 국묵담스님을 계사로 대승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했다. 봉원사 주지, 중앙총회 부의장, 총무원 교무부장, 제3대 원로회의 부의장 등을 지냈다. 김주익 기자

“지역 거점 ‘명품대학’ 특성화 노력”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많은 위치를 두고 경주에 동국대 지역캠퍼스가 자리한 것은 불교문화를 되살리고, 불교정신에 따른 인재양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사람 인재를 키워내는데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3월 26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그동안의 변화와 소개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 총장은 2014년 핵심과제로 △내실 있는 국제화 추진 △효율적 경영시스템 구축 △인적·물적 인프라 개선 △재정건전화 설정 △브랜딩 가치 제고 △특화된 교육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이 총장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원 문제,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취업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소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12년 10월 이계영 총장이 부임하며 먼저 학제개편을 통해 41개 학과를 30개 학과로 조정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첨단 의료 산업 육성과 기계산업 등의 흐름에 맞춰 의생명공학과와 기계부품시스템공학과를 신설했다.

이계영 총장은 “단과대는 인재양성을 위



맞춤형 학제 개편으로 경쟁력 강화 불교인재 배출 파라미타 칼리지 신설 재능기부 등 지역연계 활성화

한 행정서비스 시스템일 뿐으로 중요한 것은 학과와 학생’이라며 “단과대학의 구분을 넘어 중복된 학과를 융합하고, 대학본부와 학과간 직통 체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전있는 인재 양성 ‘파라미타 칼리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역인재의 경우 진로에 대한 갈증이 많기에 진로 및 생활상담 등을 진행하는 교양과정인 파라미타칼리지(PARAMITA College)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파라미타칼리지에서는 기숙공간을 교육 공간화했다. 기숙생활을 하는 56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도 비교과 학습활동과 상담 등이 진행된다.

파라미타칼리지에는 연구 등의 직무를 맡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담 학사지도교수’ 5명이 배치된다. 또 자기계발을 위한 ‘대학생활과 자기개발 1,2’ 등이 교양과목으로 진행된다.

신입생들의 1:1 개별 면담과 온라인 면담 등도 진행되며 요가, 다도 등 인성교육, 영어, 영화 속 종교문화 등 글로벌 교육, 리더십 교육도 진행된다.

지역 영향력 강화·기업 연계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역 사회·기업과 상생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대, 의대 등의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사회에 재능기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참사람재능나눔센터를 건립했다. 또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학내에 개소했다.

이계영 총장은 “천년고도 경주에 흐르는 정신은 불교의 실천사상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며 “경주시·기업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참인재를 배출하는 명품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락 스님, 동국대에 5억원 쾌척

승림사 유치원 월급 18년 모야 기부

부산의 작은 암자에서 수행정진하며 평생을 어린이들을 가르쳐온 비구니 스님이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5억원을 기부해 화제가 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부산 승림사 주지 진락 스님(66세,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문학과 졸업)(사진 오른쪽). 진락스님은 부산 녹산동 승림사 옆에 승림사 유치원을 지난 1996년 개원해 운영 중이다. 스님은 승림사 주지이자 유치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18년간 월급으로 받은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왔다. 기회가 된다면 의미있는 곳에 사용하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절 살림이나 유치원 살림을 할 때도 쌀만들, 돈 한푼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동국대 이사장인 정령 스님이 대학에 소중한 정제(淨財)를 기부해달라는 권유를 하자 스님은 흔쾌히 그동안 모은 정제를 내놓았다. 진락 스님은 “승가의 삶이라는 게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가고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순리”라며 “출가 수행자는 뜻을 가진 이들을 돕고 배려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본분을 지켜 후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대학이 잘 알아서 뜻깊은 곳에 사용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노덕현 기자



“수행자 위상 바로 세우기에 진력”

전국푸른수행자회 상임대표 해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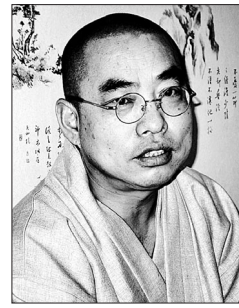
“맑고 깨끗한 수행자”를 모토로 최근 발족된 전국푸른수행자회(상임대표 해월)가 3월 26일 단체 발족 동기와 향후 계획을 알리는 기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해월 스님(사진)은 불교계의 미약한 수행정신을 문제 삼으며 “불교가 노화현상에 걸렸다. 문제는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스님들이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행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불교의 역할에 고민하는 차원에서 스님들이 뜻을 모으게 됐다”며 창립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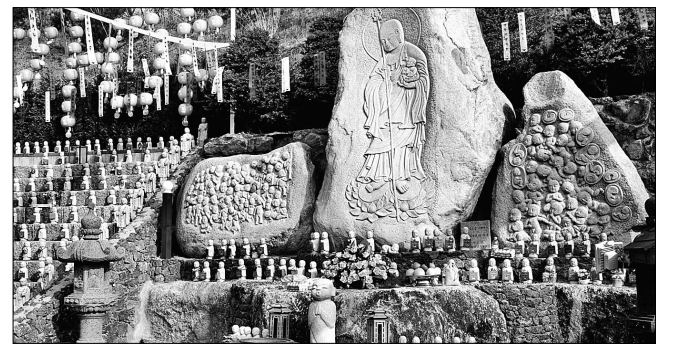
스님은 “종단이 아닌 개개인의 수행 문제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수행자간 방법과 형태가 다양해지다 보니 수행자들이 서로에 대해 불신과 거부감이 높았다. 수행 공동체 일원으로서 문제점을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도권에 들지 않으면 수행하기 힘든 문화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앞서 2월 27일 대구 관오사에서 창립총회를 연 전국푸른수행자회는 상임대표에 해월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장), 공동대표에 반산 스님(원각사 주지), 강설 스님(전국선원 수좌회 복지분과위원장), 비구니 철학 스님(해인사 악수암 한주)을 선출했다. 집행위원장은 청운 스님(남산 대원정사), 사무처장은 현산 스님(단천 해인사포교당 우리절), 운영위원은 부명 스님(백령도 몽운사 주지)이 맡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남양주 구담사 자모암 낙성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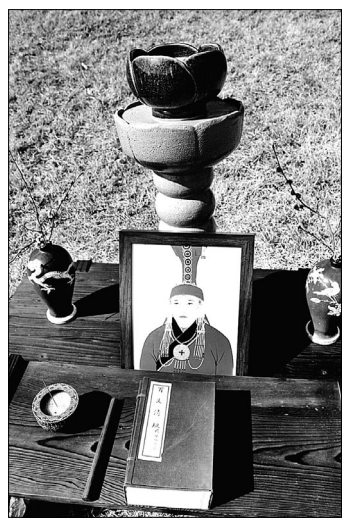


태아영가 천도 전문도량인 남양주 구담사(주지 지윤)는 3월 23일 대법당에서 ‘자모암 낙성식 및 삼존불 신중봉화 점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주법대법사로 모시고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 포천사암련 회장 양산 스님 등 600여 대종이 동참했다.

지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태아영가 전문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두의 노력으로 불사를 완만희망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무욕무심으로 정진해 가겠다”고 밝히고 함께한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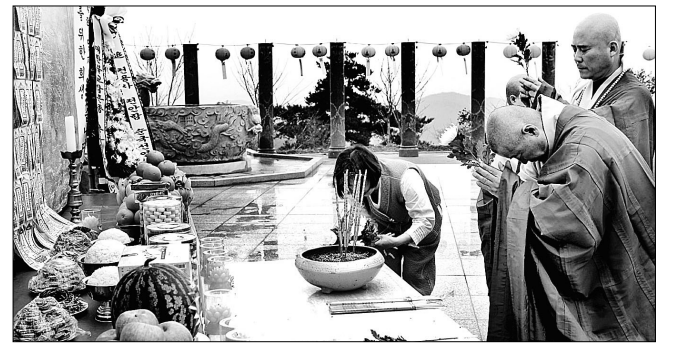
불교계 기황후 현다식 올려 ‘눈길’

한국국제선문화연구회는 3월 21일 행주 기씨 종중과 함께 연천을 상리에 자리한 기황후 능에서 현다식을 개최했다. 현다식은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前 수덕사 주지 용산 스님 등 스님들과 최석환 <차의 세계> 발행인을 비롯해 행주기씨 대종회 기술홍 회장, 최홍자 전통진흥회 이사장, 허홍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삼론종, 천안암 호국영령위령대제



천안암 침묵 4주년을 맞아 천안암 46장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법회가 3월 26일 충남 서천 천용사(주지 지경) 관음전에서 삼론종 후원으로 봉행됐다.

이날 영산재는 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삼론종 승정 지운 스님의 집전으로 대령관육과 상주관공에 이어 스님과 불자들의 화화분향,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의 추모사, 부주종 인봉대종사의 법문, 원각사 주지 성덕 스님의 발원문, 대구광역시 사무령문화재 제9호 살풀이 춤 전수조교 변승희 씨의 살풀이 순으로 진행됐다. 정혜숙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2014 빛교을 관등축제

4월 26~27일 광주공원 앞에서 연등 밝히고 화합 한마당

4월 18일 광주시청 사거리에 장엄등 ‘미륵사지 탑’ 점등



2014 빛교을 관등축제

행사명	일시	장소
관등법회(봉축법요식)	4월 26일 오후 6시 30분	광주공원 앞
부처님 나투심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		
대동한마당(봉축음악회)	4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공원 앞
봉축을 기념하는 음악회		
전통등 만들기	3월 22일~23일 오후 2시	불교회관 2층
광주전 주연에 장식할 전통등을 만드는 행사		
봉축탑 점등식	4월 18일 오후 7시	광주시청 앞 사거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기념봉축탑을 점등		
전통등 전시회	4월 26일~5월 9일	광주공원 앞 광주전
광주전에 다양한 전통등을 설치해 불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등을 볼 수 있는 행사		
시민문화한마당	4월 26일~27일	광주공원 앞
불교단체와 함께 다양한 전통 체험행사 참여		

봉축한마당

행사명	장소	일시	주관 단체
제회 나무송 어린이수계신림	동원사	5월 3일 오후 2시	동원사, 나무송, 동원광주지구
금남로에 피어나는 5.18희망의 등 밝히기	충정로~금남로	4월 25일~5월 27일	광주전남불교NGO연대
2014 부대의 희망선물	청소년가정세대	4월 28일~30일	자비선행회
전법승 소책자 발간	금남로	4월~5월	광주불교교육원
연꽃등 불 밝히는 날	광산구우산근린공원	5월 6일	아시아젊음공동체
부드와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	광주하남골프클럽사내마	5월 17일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산길따라 물길따라 어르신 나들이	화순군	5월 15일	대해노인복지센터
국군 함평병원 환우를 위한 위문공연	함평병원	4월 30일 오후 2시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전남대학교 점등식 및 제등행렬	전남대	5월 9일 오후 5시	전남대 불교학생회
광산구청 봉축행사	광산구청	4월 29일	광산구청불자회
제회 지역주민을 위한 대중공연	동구지역 노인정	5월 2일	맑고활기찬 광주모임
부처님 오신날 떡 보시	광주시청	5월 2일 오후 3시	광주시청불자회
외국인 근로자 제등행진	하남광안	5월 6일 오후 6시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제회 광주시민사회단체에 전하는 부디의 떡공양	부디	5월 2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제5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연꽃등만들기	광주우체국 앞	5월 4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문화한마당(광주공원앞 특설무대)

행사명	일시	주관 단체
제7회 빛교을 연꽃문화제	4월 26일 오전 10시	(사)동원 광주지구
청소년음악놀이한마당	4월 26일 오후 3시	(사)광주파라미터청소년협회
시민과 함께하는 비빔밥	4월 26일 오후 5시	
영산회 시연	4월 27일 12시	전통불교영산회
외국인문화축제	4월 27일 오후 1시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사)해뜨는복지센터
전통차 시연 및 들차 시범	4월 27일 오후 3시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 광 합장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30 불교회관 전화 062-385-131 팩스 062-376-1311

▶빛교을 장엄등 미륵사지 탑